

‘광주도시공’ 강경민, 女 핸드볼리그 선두 질주 견인

13경기 총 141골·경기당 10.8골 득점 1위·도움 4위로 ‘맹활약’ 팀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 기여 “득점왕보다 팀 우승 헌신할 것”

여자실업핸드볼 광주도시공사의 ‘캡틴’ 강경민(26·센터백)이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며 팀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에이스 강경민의 맹활약에 힘입어 ‘팀 최다연승·팀 최다 무패 기록’과 함께 ‘창단 후 첫 전 구단 상대 승리’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6일 강원도 삼척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2라운드 부산시청공단의 경기에서 29-25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광주도시공사는 11승 2무, 승점 24점으로 2위 삼척시청(10승 1무 2패·승점 21)에 승점 3점 차 앞선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또 13경기 연속 무패 행

진을 이어가며 팀 최다 무패 기록을 경신했다. 광주도시공사의 기존 팀 최다 연승과 최다 무패 기록은 지난 2021~2022시즌 3월 4일 부산시청공단전(21-18승)부터 3월 18일 컬러폴대구전(32-19 승)까지 거둔 5연승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앞서 1월 14일 서울시청전(30-24 승)부터 2월 19일 SK슈가글라이더즈전(29-24 승)까지 7연승을 거두면서 팀 최다연승 기록을 갈아 치웠다. 또 지난 12일 SK슈가글라이더즈와의 경기를 29-24로 이기면서 창단 첫 구단 상대 승리 기록도 달성했다.

에이스이자 주장을 맡고 있는 강경민이 올시즌 최고의 기량을 펼치며 팀의 무패 선두를 견인하고 있다.

강경민은 빠른 움직임과 정확한 슈트로 공격을 책임지며 13경기에서 141골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당 10.8골로 득점 부문 리그 1위다. 또 넓은 시야와 정확한 롱패스로 54개의 어시스트(리그 4위)까지 기록하는 등 팀 동료들의 득점 찬스를 열어



광주도시공사 강경민이 지난 19일 부산 기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2라운드 서울시청과의 경기에서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주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강경민은 공격 뿐 아니라 스틸도 10개

를 기록하는 등 수비에서도 헌신적이다.

강경민의 진가는 개막전부터 발휘됐다. 1월 6일 경남개발공사와의 시즌 첫 경기서 6골 4도움으로 펄펄 날며 팀 승리를 이끌더니 1월 13일 SK슈가글라이더즈전에선 11골을 넣으며 통산 700득점을 달성했다. 1월 15일 서울시청전에서는 시즌 최다인 16득점을 폭발시켰고, 2월 19일 서울시청전에선 11골을 추가하며 통산 800득점을 돌파했다.

부담스런 직책인 주장을 맡아 솔선수범으로 팀워크를 조화롭게 이끌면서 개인 성적까지 올리는 강경민의 존재감이 이번 시즌 광주도시공사의 선두 질주 원동력으로 보여진다.

2014년 신인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광주도시공사 유니폼을 입은 강경민은 이후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강경민은 개인 사정으로 임의탈퇴, 2018~2019시즌을 뛰지 않았지만 청소년대표팀 시절 인연을 맺었던 오세일 감독이 2019년 5월 광주도시공사 사령탑을 맡으면서 코트로 복귀했다.

9개월 동안 코트를 떠났던 강경민은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렸고, 2019~2020시즌과 2020~2021 시즌 연속 정규리그 MVP와 득점왕을 석권하면서 만년 꼴찌였던 팀을 상위권으로 끌어 올렸다. 2021~2022시즌엔 득점왕을 권한 나(SK슈가글라이더즈)에게 양보했지만 팀의 통합 준우승을 이끌었다.

경험치가 쌓이면서 올해는 경기를 조절하는 노련미까지 생긴 강경민이 남은 경기에서도 부상없이 꾸준한 활약을 이어간다면 개인 득점왕 탈환과 함께 팀의 첫 정규리그 우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광주핸드볼계의 시각이다.

강경민은 개인 목표 보다는 팀의 첫 정규리그 우승 달성에 헌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경민은 “모든 선수들이 매 경기를 마지막 경기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는 게 1위를 지킬 수 있는 힘인 것 같다”며 “득점왕 보다는 부상없이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고 팀 우승을 이루는 게 목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



메시 소속팀 통산 700골 파리 생제르맹(PSG)의 리오넬 메시가 27일(한국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에서 열린 올림피크 마르세유와 2022~23 프랑스 리그앙 원정경기에서 전반 29분 음바페의 어시스트로 팀의 2번째 득점에 성공한 뒤 동료선수들과 기뻐하고 있다. 메시는 이 골로 자신이 몸담은 소속팀에서 통산 700골의 위업을 세웠다. 2004~2005시즌부터 2020~2021시즌까지 무려 17시즌 동안 몸담은 FC 바르셀로나에서 672골을 기록한 메시는 파리 생제르맹서 28골을 넣으며 700골을 채웠다.

신화/뉴시스

영암군민속씨름단, 문경장사씨름 단체전 우승

‘신예’ 김민재 백두장사 등극 최성환 통산 11번째 한라장사

영암군민속씨름단이 문경장사씨름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신예’ 김민재(21)는 올시즌 백두장사 2관왕을 차지했고, 최성환(31)은 개인 통산 11번째 한라장사에 등극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27일 경북 문경시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계약 2023 민속씨름 문경장사씨름대회’ 단체전 결승(7전 4선승제)에서 MG새마을금고씨름단을 4-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준결승에서 울산 울주군청을 4-1로 꺾고 결승에 오른 영암민속씨름단은 첫 경기 남우혁 지고 두 번째 경기 최정만이 이겨 1-1이 됐다. 세 번째 경기에 나선 차민수가 상대 오창록에게 겨 다시 1-2로 밀렸지만 김민재와 박권익, 김진호의 연이은 승리로 우승을 확정지었다.

‘신예’ 김민재는 앞서 열린 백두장사(140kg이하) 결승전에서 최성민(태안군청)을 3-1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김민재는 지난 설날 대회에 이어 올시즌 두 번째이자 개인 통산 4번째



영암군민속씨름단이 27일 경북 문경시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계약 2023 민속씨름 문경장사씨름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MG새마을금고씨름단을 4-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백두장사(2022 단오·천하장사, 2023 설날·문경)에 올랐다.

최성환은 지난 26일 열린 한라장사(105kg이하) 결정전(5판3선승제)에서 박민규(용인특례시청)를 3-1로 꺾고 꽃가마를 탔다.

이번 우승으로 최성환은 개인 통산 11번째(2013 추석, 2015 설날, 2017 설날·단오·추석, 2019 설날·단오, 2020 설날·단오, 2022 추석, 2023 문경) 황소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최동환 기자

전남, 2023 학교체육시설 개방 최다 선정... 6년 연속

나주 등 8개 시·군 28개소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전남이 올해도 학교체육시설개방사업 공모 최다 선정으로 가장 많은 학교체육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하게 됐다

27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주관 2023년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 나주(8개교), 장흥(7개교), 강진(4개교) 등 8개 시·군에서 28개교가 최종 선정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시설을 개방한다.

이는 전국 120개소 중 23.3%의 점유율로 전국 최다이다. 또 전남과 비슷한 여건인 전북(17개소), 경북(14개소), 충남

(12개소) 등을 훨씬 상회한 선정이다.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은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방과 후, 휴일) 개방을 통해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전남은 2018년 25개소, 2019년 30개소, 2020년 32개소, 2021년 34개소, 2022년 33개소에 이어 6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 선정된 전남 28개소는 1곳 당 3000여만원, 총 8억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평일 방과 후 및 주말·공휴일 등에 도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될 예정이다.

전남 28개소 중 10개소(나주 4·장흥 6·

영암 1개소)는 3년치(2020~2022년) 성과평가 점수를 종합 반영 결과 상위 25%(총 30개 시설)에 선정돼 총 2600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받는다.

인센티브 추가 대상은 전남 10개소를 비롯해 전북 7개소, 경북 5개소, 충남 4개소 등 총 30개소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동호인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부담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각종 공모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전남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드래곤즈, ‘전천후 미드필더’ 조지훈 영입

공·수 전환 패싱력 일품

‘전천후 미드필더’ 조지훈(33·사진)이 전남드래곤즈에 등지를 틀었다.

프로축구 K리그2 전남드래곤즈는 미드필더 조지훈을 자유계약(FA)으로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191cm·80kg의 체격을 지닌 조지훈은 높은 제공권과 날카로운 공·수 전환 패싱력으로 전남의 중원과 수비에 무게감을 더해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세대를 거쳐 2011년 수원삼성에 입단한 조지훈은 상주, 강원을 거쳐 2021년 태국 치앙라이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다. 2022년 다시 K리그로 돌아와 FC서



울에서 뛰었다. 그의 K리그 통산 성적은 107경기 출전, 1골 3도움이다.

조지훈은 “지난 시즌 전남드래곤즈 경기를 모두 찾아봤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공·수 전환하는 패스에 자신있다. 그리고 고참으로서 후배들을 잘 이끌면서 전남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조지훈은 이어 “전남드래곤즈 경기를 보시는 팬들이 저의 경기력을 보시고 조지훈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